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시안외사대학교	기숙사비	755000원/한 학기
파견지역	산시성 시안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input checked="" type="checkbox"/>) 분할납부(<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7.09.01.~2018.01.06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명	△△△	학과	△△학과
성별	남자	학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9. 01. 08.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수업을 듣기 전에 우선 배치고사를 통해 반 배정을 받았다. 1반부터 5반까지 있는데 나는 4반으로 배정 받았다. 4반의 교육과정은 총 4과목으로 회화, 독해, 듣기, HSK로 나누어져 있다. 회화 수업은 교과서 보다는 정해진 주제에 의해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법, 점원과의 대화하는 법을 배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회화를 많이 배웠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조금 특이했다. 서안에 있는 장소 중 학생들에게 괜찮은 곳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 독해 수업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 새로운 단원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단어의 여러 가지 뜻, 단어의 쓰임새를 배우고 들어갔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뜻을 유추하기 수월했다. 또한 매주 일기를 써야했다. 일기를 다 쓰면 교수님께 첨삭을 받았다. 다음으로 듣기 수업이다. 듣기 수업은 제일 듣기 힘들었던 과목이었다. 중국을 가기 전에 내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듣기였다. 그래서 듣기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걱정을 많이 했고 역시나 따라가기 조금 벅찼다. 듣기 수업도 교과서 위주로 진행하는 데 책의 난이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높은 것 같다. 교수님이 듣기 파일을 여러 번 재생하고 우리들은 모든 내용을 받아쓴다. 하지만 속도가 워낙 빨라서 정확히 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은 HSK 수업이었다. 유일하게 이 수업만 중간, 기말고사가 없었다. 먼저, 짧은 문장 작문으로 시작해 독해로 끝이 났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 방식은 작문 첨삭이었다. 80자의 작문을 끝내면 사진을 찍어 교수님께 보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PPT를 활용해 다른 학생들과 같이 문제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서안의 위치는 중국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지도 않고 겨울에는 춥지도 않았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바다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몇 백 미터 밖의 건물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겨울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을 하기 힘들 정도였다.

교통편은 훌륭했다. 시안외사대학교 북문에서 500미터 정도 걸으면 지하철역이 있었다. 또한 최근에 1~3호선 밖에 없었던 지하철이 4호선까지 개통해 다른 지역까지 가는 데 조금 더 수월했다. 그래서 시내를 가거나 유적지를 갈 때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녀서 다른 지역의 유학생들보다 더 많이 놀러 다니고 새로운 곳을 경험했다. 다만 지하철 역 주위에 차가 너무 많아 위험한 상황이 무척이나 많았다.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호객행위를 하는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 혼자 지하철역 가기는 조금 위험했다.

주변 편의시설은 학기 초에는 너무 잘 돼 있었다. 하지만 재개발 공사로 인해 북문의 많은 음식점들이 사라졌다. 또한 북문 앞에 상인들과 공인들의 대립으로 인해 폐허가 돼 버렸고 분위기는 험악해졌으며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고 불을 꺼 밤이 되면 혼자 밖을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북문 이용은 자제하고 동문으로 돌아갔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55000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건물 내 금연, 고성방가 금지, 애완동물 키우기 금지		
주인사항	아무리 호텔형 기숙사라고 말하지만 방음은 일반 기숙사와 별 차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위층에서 들릴 만큼 방음이 좋지 않다. 그래서 오후 10시 이후에는 큰 목소리로 떠들거나 룸메이트와 장난을 치면 안 된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는 2인 1실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스탠드 등 없는 게 없었다. 침대 시트도 2주마다 바꿔 주고 휴지통도 청소 아주머니께서 매일 비워주셨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은 잘 나왔지만 겨울에 뜨거운 바람이 악하게 나와 전기 장판을 가지고 오지 못한 나는 추위에 떨며 지야 댔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니 내 침대 위에 큰 나무 판자가 있었다. 당황한 나는 잠시 멍한 상태로 서 있다 곧이어 수리기사님께서 방으로 들어와 다시 침대를 고치고 계셨다. 하지만 한 달이 채 가지 않고 내 침대 등판은 또 다시 말썽이다. 이곳은 기숙사 내 시설은 좋지만 그만큼 고장이 잘 난다. 한 번은 화장실 수도꼭지가 터져 밤새도록 물을 바가지로 퍼낸 적도 있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화장실도 중국 공중화장실 상태에 비하면 매우 깨끗했다.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물 수압도 적당했다. 기숙사에서 제일 만족했던 시설 중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화장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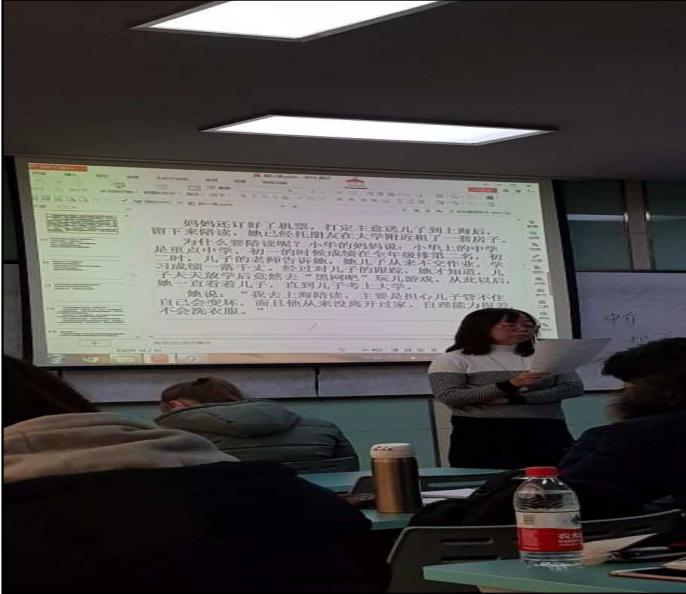
기숙사 내 가장 우선으로 갖춰야 될 소화전이다. 박스를 열어 봤는데 소화기에는 먼지가 가득 끼어 있었고 이 소화기를 도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방치 했는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녹슨 부분도 많았다. 그래서 중마다 이러한 빨간 소화전이 있지만 단지 장식용 소화전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내가 처음 기숙사를 왔을 때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었다. 그래서 기숙사 직원한테 물으니 곧바로 설치해주셨다. 한껏 기대를 하며 와이파이를 키고 인터넷을 사용했지만 와이파이의 성능은 한국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데이터가 무제한이라 나는 와이파이를 쓰지 않고 데이터를 썼다. 내 룸메이트도 그랬고 와이파이기가 거의 쓸모없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틀기 수업 시간의 모습이다. 틀기 수업은 스크립트가 필요해 수업시간 때마다 피피티를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휴지를 챙겨 항상 책상을 닦아줘야 한다. 건물 내부이지만 창문을 통해 미세먼지가 들어와 항상 책상 위는 더럽고 먼지가 많다.



기숙사 바로 앞에 있는 대운동장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나는 운동장을 보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중국인들과 축구 팀을 만들어 대학 축구 대회도 참가했다. 그 결과 우리 팀은 우승을 했고 중국인들과도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내 있는 식당이다. 처음 이 곳을 갔을 때 중국 특유의 향이 너무 심해 곧바로 나간 기억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냄새에 적응이 되었고 다양한 중국 음식에 도전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해 밥 값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한국식 김밥집이 있는데 절대 가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너무 맛이 없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 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느낀 점은 제 2 외국어를 배우려면 역시 그곳에 직접 살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나는 그곳에서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말했던 중국어보다 훨씬 많이 했다. 왜 진작에 교환학생을 빨리 신청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도 했다. 내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듣기였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다가갔다. 중국인과 대화를 많이 하고 결국 친구도 많이 사귀었다. 중국에 가기 전에 나의 소극적인 성격 탓에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괜한 걱정이었다. 중국친구들은 한국인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고 친절하게 대해줬다. 또한 스포츠를 중국인들과 같이 하면 자연스레 중국어도 늘지 않을까 생각하며 중국인과 한국인이 같은 팀인 축구팀을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매 경기를 할수록 중국 친구들과 친해지고 대화를 많이 하며 결국 우리 팀은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지금도 그 때 같이 축구공을 찼던 중국인들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중국에서의 삶의 질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음식이 나에게 맞지 않아 처음엔 중국 생활은 쉽지 않았다. 매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나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 한정적이었다. 3일 연속 같은 음식을 먹은 적도 있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게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이자 스트레스였다. 하지만 역시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2개월이 지난 뒤 웬만한 중국 음식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만족했던 교환학생 경험이었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여행을 별로 가지 못한 점이다. 한 학기를 중국에서 살면서 서안 이외의 다른 도시를 많이 가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왕 중국에 온 거 많은 곳을 다녀보고 경험을 해보고 싶었지만 재정적인 문제와 시간이 없어 북경만 갔다 왔다. 그래서 비록 서안에 4개월 동안 있었지만 다시 가보고 싶고 기억에 남는 곳은 서안이 아닌 북경이다. 서안에 익숙했던 나로서는 4일 간의 북경 여행은 충격적이었고 재미있었다.

학교를 다니면 수업 이외의 KCC라는 중국인과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전에 인사대에 교환학생을 갔다 온 친구들에게 KCC라는 프로그램을 물어봤는데 모두 다 별로라는 얘기만 했다. 그래서 나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역시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프로그램은 별로였다. 중국인 친구와 1대1로 짝이 돼서 이야기를 하지는 취지는 좋았으나 프로그램은 두 달에 한 번 꼴로 진행 되었다. 그래서 KCC파트너와 친해지기에는 만날 시간이 너무 없었다. 차라리 KCC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다른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이 중국인들과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을뿐더러 중국어도 더 늘 것 같다.

마지막으로 4개월간의 유학생생활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이제 조금 귀가튼 것 같다고 생각할 때쯤에 학기가 끝나고 귀국을 하게 되었다. 한 학기를 더 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번이 마지막 교환학생일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을 발판삼아 더욱 더 중국어 공부에 몰두하고 언어는 쓰지 않으면 금방 퇴화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입에서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